

경제주평

- 2023년 부채 증가 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2022년 대비)

목 차

■ 부채 증가 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부채 증가 가구의 현황	2
3. 부채 기보유 여부별 특징	4
4. 시사점	8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제 연 구 실 : 신 지 영 선임 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Executive Summary

□ 부채 증가 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 개 요

국내 경제에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한 때 가계부채가 감소세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증가세로 재전환된 가운데 증가 폭마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가계대출은 2022년 4분기 사상 첫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 3분기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2024년 1분기 현재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1,767조 원을 기록 중이다. 한편, 최근의 가계대출은 이전과 달리 고금리 기조 속에서 확대되었는데, 2024년 3월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4.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가계대출의 증가 폭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본 보고서는 2023년 부채가 증가한 가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하에서 부채를 늘린 가구의 특징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부채 증가 가구의 현황

2023년 부채가 증가한 가구는 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한 한편, 금융부채 규모와 이자 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부채 증가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전년 대비 1.9% 감소하였으나, 금융부채 규모는 1.2% 증가하고 이자 비용 또한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증가 가구의 재무 건전성을 DTA와 DSR로 평가한 결과에서도 DTA는 전년대비 3.5%p 상승한 30.4%, DSR은 3.3%p 상승한 33.9%로 나타나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한 부채 수준과 소득을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평가한 지표가 모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 전체 부채 보유 가구와 부채 증가 가구의 재무 건전성 >

(단위: 만원, %, %p)

구분	가처분소득	금융부채	이자비용	DTA	DSR
전체 부채 보유 가구	6,094	12,010	435	25.8	32.6
	(2.7)	(1.1)	(21.4)	(1.5)	(1.7)
부채 증가 가구	5,715	13,336	417	30.4	33.9
	(-1.9)	(1.2)	(18.4)	(3.5)	(3.3)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괄호는 전년대비 증감률(%)이며, DTA(Debt to Asset Ratio; 부채/자산 비율)와 DSR(Debt Service Ratio; 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 비중)은 증감(%p)을 의미.

한편, 부채 증가 가구를 부채 기보유 여부별로 분류한 결과, 부채 증가 가구의 대부분은 부채를 기보유한 가구의 추가 차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채 증가 가구의

비중은 2022년(39.2%), 2023년(36.2%)로 30%를 상회하는 가운데 이들 가구의 약 73%가 부채를 기보유한 가구의 추가 차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년도에는 부채를 보유하지 않았으나 당해 연도에 새로 차입한 가구를 의미하는 신규 차입 가구 비중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26%대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고금리 여건에도 불구하고 새로 대출을 받는 가구가 일정 규모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부채 기보유 여부별 특징

① 추가 차입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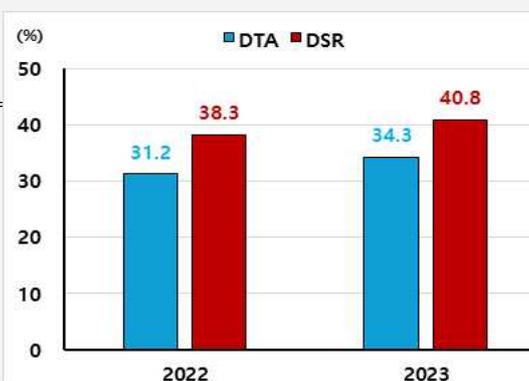
2023년 추가 차입 가구는 생활비 목적의 부채 증가가 주요했던 가운데 DSR 등으로 평가한 재무 건전성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증가 배경) 국내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일반적으로 부채 증가 요인으로 부동산 구입 목적을 응답한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2023년 추가 차입 가구는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부동산 구입을 응답한 비중이 전년 대비 1.2%p 감소한 28.7%를 기록한 반면에, 생활비 목적을 응답한 가구 비중은 27.1%로 전년 대비 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금액을 기준으로도 추가 차입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는 4.4%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구입 목적의 대출은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 건전성) 추가 차입 가구는 소득의 증가에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DSR이 40%를 상회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였을 것으로 우려된다. 추가 차입 가구는 2023년 가처분소득이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으나, 이자 비용은 20.6% 대폭 증가하면서 채무 부담이 가중되었다. 또한, DTA는 34.3%, DSR은 40.8%로 전년 대비 각각 3.1%p, 2.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채 누적에 따른 상환 부담 가중과 자산 가치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가 차입 가구 재무 건전성 (1) > < 추가 차입 가구 재무 건전성 (2) >

(단위: 만원, %)

구분	2022	2023	증가율
가처분소득	5,839	5,926	1.5
금융부채	15,722	16,413	4.4
이자비용	441	532	20.6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② 신규 차입 가구

신규 차입 가구의 2023년 재무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생활비 목적의 차입이 대폭 증가한 가운데 소득과 자산이 크게 감소한 점은 우려된다. (부채 증가 배경) 신규 차입 가구는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부동산 구입을 응답한 비중이 전년 대비 1.2%p 증가한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비를 응답한 가구의 비중도 전년 대비 20.9%p 대폭 증가한 35.5%를 기록하였다. 즉, 부동산 구입이 부채를 새로 얻는 가구의 가장 주요한 요인인 동시에 2023년은 생활비 목적의 신규 차입도 크게 증가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분포를 기준으로 2023년은 저소득층 신규 차입 가구의 비중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나 투자 목적보다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한 생계비 목적의 대출 가구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무 건전성) 신규 차입 가구는 단년도 부채 보유 가구라는 특성상 DTA와 DSR로 평가한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이 크게 감소한 점은 우려된다. 신규 차입 가구는 2022년 대비 2023년 가처분소득이 11.2% 대폭 감소하였으며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모두 감소하면서 총 자산도 25.1%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규 차입 가구의 부채 규모 감소에도 이자 비용은 고금리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신규 차입 가구의 재무 건전성 >

(단위: 만 원, %, %p)

구분	2022	2023	증감(률)
가처분소득	5,783	5,135	-11.2
총 자산	58,551	43,858	-25.1
이자비용	104	103	-1.5
DTA	14.8	16.8	2.0
DSR	9.0	12.1	3.1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된 가운데 부채 증가 가구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첫째,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향 안정화가 전망됨에 따라 금리 하락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가속화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내 가계부채의 특성상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도 정책 혼선을 야기하지 않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저소득층의 신규 차입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이 소득 감소에 따른 채무 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 제도의 강화 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1. 개요

- 국내 경제에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가 사상 첫 감소세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재확대된 상황
 - 국내 가계대출은 2022년 4분기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첫 감소세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지난해 3분기 이후 증가세가 재확대되는 흐름
 - 가계대출은 2022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0.4%로 사상 첫 감소세를 기록한 이후 2023년 1분기에는 -1.0%까지 감소 폭이 확대되었음
 - 그러나 2023년 3분기 증가세로 재전환된 이후 2분기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며 2024년 1분기 현재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1,767조 원 규모 기록
 - 한편, 지난 가계대출 확장기에는 저금리 기조하에서 가계대출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최근의 가계대출은 고금리 기조 속에서 확대된 특징이 있음
 - 과거 가계대출이 대폭 확대되었던 시기인 2014년~2015년, 2020년~2021년은 가계대출금리가 2%대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저금리 기조가 만연
 - 그러나 2024년 1분기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평균 4.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금리 여건에도 불구하고 1분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상황
- 이에 본 보고서는 부채 증가 가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하에서 부채를 늘린 가구의 특징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 시장금리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2. 부채 증가 가구의 현황¹⁾

- 2023년 부채 증가 가구는 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보유 부채 규모와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채무상환 부담이 증대되었을 것으로 판단
- 부채 증가 가구는 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금융부채 규모와 이자 비용이 증가
 - 부채 증가 가구는 2023년 가처분소득이 전년 대비 1.9% 감소한 한편, 금융부채 규모와 이자 비용은 각각 1.2%,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전체 부채 보유 가구의 경우 부채 금액과 이자 비용은 증가하였으나 소득이 전년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감소한 부채 증가 가구의 체감 상환 여력이 더 악화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함
- DTA와 DSR로 평가한 재무 건전성 또한 전체 부채 보유 가구 대비 부채 증가 가구에서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부채 증가 가구의 DTA(총부채/총자산)는 2023년 30.4%로 전년 대비 3.5%p 상승하면서 전체 부채 보유 가구의 DTA 수준(25.8%)과 상승폭(1.5%p)을 모두 상회
 - DSR(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의 경우에도 2023년 33.9%로 전년 대비 3.3%p 상승하여 전체 부채 보유 가구의 DSR 수준(32.6%)과 상승폭(1.7%p)을 모두 상회하였음

< 2023년 전체 부채 보유 가구와 부채 증가 가구의 재무 건전성 >

(단위: 만원, %, %p)

구분	가처분소득	금융부채	이자비용	DTA	DSR
전체 부채 보유 가구	6,094	12,010	435	25.8	32.6
	(2.7)	(1.1)	(21.4)	(1.5)	(1.7)
부채 증가 가구	5,715	13,336	417	30.4	33.9
	(-1.9)	(1.2)	(18.4)	(3.5)	(3.3)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괄호는 전년대비 증감률(%)이며, DTA와 DSR은 증감(%p)을 의미.

1) 본 보고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21년~2023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부채는 총부채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융부채(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관련 대출 등)를 의미함.

○ 한편, 부채 증가 가구의 대부분은 부채를 기보유한 가구가 추가 차입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남

- 부채 증가 가구는 부채 기보유 여부에 따라 추가 차입 가구와 신규 차입 가구로 구분되며,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부채 증가 가구를 식별

< 부채 기보유 여부별 부채 증가 가구의 정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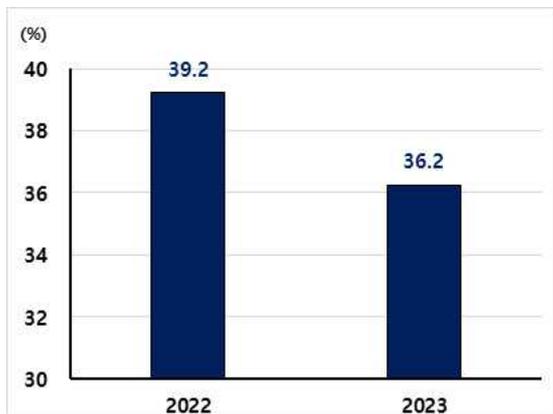
부채 증가 가구	추가 차입	· 전년도에 금융부채를 이미 보유한 가구가 당해 연도에 금융부채 규모를 늘린 경우 (ex) 2022년에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2023년에 부채금액 증가)
	신규 차입	· 전년도에 금융부채를 보유하지 않았으나 당해 연도에 금융부채가 생긴 경우 (ex) 2022년에는 금융부채가 없으나 2023년에 새로 생긴 가구)

- 부채 증가 가구 비중은 39.2%(2022년)~ 36.2%(2023년) 수준이며, 추가 차입 가구의 비중은 약 73% 대로 나타남

· 전체 부채 보유 가구 대비 부채 증가 가구의 비중은 2022년 대비 2023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30% 후반을 지속 중이며, 이들 가구의 약 73%가 부채를 기보유한 가구가 추가 차입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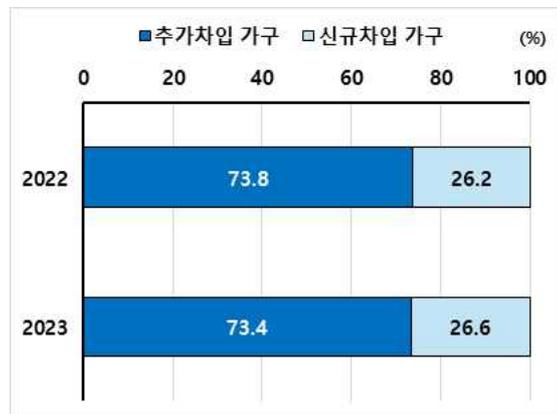
· 한편, 부채가 증가한 가구 중 신규 차입 가구의 비중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26%대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고금리 여건에도 불구하고 새로 대출을 받는 가구가 일정 규모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

< 연도별 부채 증가 가구 비중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체 부채 보유 가구 대비 비중.

< 연도별 부채 증가 가구 분포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부채 증가 가구 대비 비중.

3. 부채 기보유 여부별 특징

① 추가 차입 가구

○ (부채 증가 배경) 2023년 추가 차입 가구의 경우 부채 증가의 배경에 거주 주택 등의 부동산 구입보다 생활비 목적이 더 주요했을 것으로 판단됨

- 추가 차입 가구는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부동산 구입을 응답한 비중이 감소하고 생활비를 응답한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

· 2023년 추가 차입 가구는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부동산 구입을 응답한 비중이 전년대비 1.2%p 감소한 28.7%를 기록하였으며, 생활비 목적은 27.1%로 전년대비 4.8%p 증가

· 이는 국내 가계부채의 경우 부동산 구입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여전히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2023년의 경우 특히 추가 차입 가구의 부채 증가는 생활비 목적이 주요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 부채 금액을 기준으로도 추가 차입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구입 목적의 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추가 차입 가구의 총 금융부채는 전년대비 4.4% 증가한 16,413만 원을 기록하였으나, 이 중 부동산 구입 목적의 부채는 7,915만 원으로 전년대비 2.2% 감소

< 추가 차입 가구의 부채증가 원인 >

(단위: %, %p)

구분	2022	2023	증감
부동산구입	29.9	28.7	-1.2
전월세보증금	6.8	7.0	0.2
금융자산투자	2.2	1.6	-0.5
부채상환	9.1	10.2	1.1
사업자금	12.7	12.3	-0.5
교육비	11.5	9.5	-2.0
생활비	22.3	27.1	4.8
기타	5.5	3.6	-1.9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부동산 구입은 거주주택, 거주주택 이외 주택, 주택 이외 부동산 구입의 합.

< 추가 차입 가구의 금융부채 변동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부동산구입 목적은 담보대출, 신용대출 중 거주주택 및 이외 부동산구입의 합.

○ (재무 건전성) 추가 차입 가구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DSR이 40%를 상회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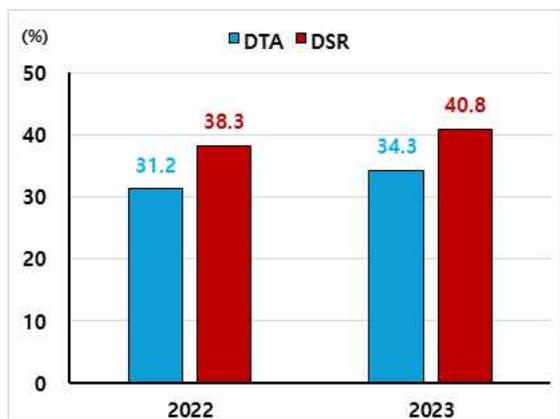
- 추가 차입 가구는 2022년 대비 2023년 가처분소득이 1.5% 증가하였으나, 이자 비용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크게 증가
 - 추가 차입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2022년 평균 5,839만원에서 2023년 평균 5,926만원으로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부채 보유 가구 중 소득 여건은 양호한 집단인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이자 비용은 평균 441만원에서 532만원으로 20.6%나 증가하여 소득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DTA와 DSR로 평가한 재무 건전성도 악화하였는데, 부채 누적에 따른 상환 부담 가중과 부동산가격 하락에 의한 자산 가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임
 - 추가 차입 가구의 DTA는 2022년 31.2%에서 2023년 34.3%로 3.1%p 상승하였는데, 이는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보유 자산액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²⁾
 - DSR의 경우 2022년 38.3%에서 2023년 40.8%로 상승하였는데, 가처분소득 증가에도 부채 누적에 따라 원리금상환액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됨

< 추가 차입 가구의 재무 건전성 (1) > < 추가 차입 가구의 재무 건전성 (2) >

(단위: 만원, %)

구분	2022	2023	증가율
가처분소득	5,839	5,926	1.5
금융부채	15,722	16,413	4.4
이자비용	441	532	20.6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2) 추가 차입 가구의 총자산액(만 원, %) : 2022(58,829) → 2023(56,497), 증감률(-4.0%)
 추가 차입 가구의 실물자산(만 원, %) : 2022(47,151) → 2023(44,323), 증감률(-6.0%)

② 신규 차입 가구

- (부채 증가 배경) 2023년 신규 차입 가구는 부채 증가의 배경에 부동산 구입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나, 생활비 응답 가구 또한 대폭 증가
- 신규 차입 가구는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부동산 구입을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증가 폭 기준으로는 생활비 목적이 가장 크게 확대
 - 2023년 신규 차입 가구는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부동산 구입을 응답한 비중이 전년대비 1.2%p 증가한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부동산 구입이 부채를 새로 얻는 가구의 가장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생활비를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35.5%를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약 20.9%p 대폭 증가하였는데, 2023년은 특히 생활비 목적의 신규 차입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소득 분포를 기준으로는 저소득층 신규 차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득 감소에 따른 생활비 목적의 신규 차입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함
 - 2022년의 경우 고소득층 신규 차입 가구 비중이 42.5%로 가장 높았으나, 2023년은 저소득층 신규 차입 가구의 비중이 42.7%로 가장 높음
 - 저소득층 가구의 신규 차입 비중이 높아진 점은 소득 감소로 인해 빚을 지는 가구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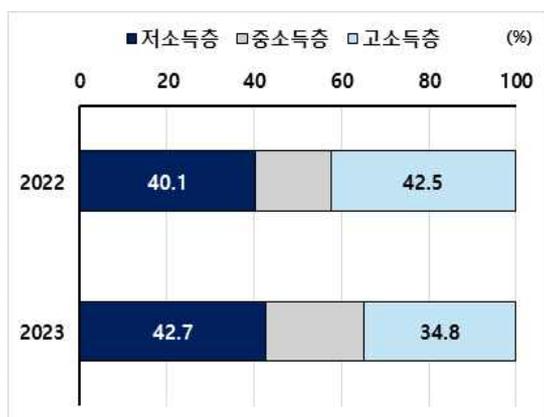
< 신규 차입 가구 부채 증가 원인 >

(단위: %, %p)

구분	2022	2023	증감
부동산구입	42.2	43.4	1.2
전월세보증금	11.7	7.2	-4.5
금융자산투자	4.4	0.0	-4.4
부채상환	6.4	1.7	-4.7
사업자금	11.6	0.5	-11.1
교육비	4.7	6.3	1.6
생활비	14.6	35.5	20.9
기타	4.3	5.3	1.0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 신규 차입 가구 소득분포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저소득층은 소득 1, 2분위, 중소득층은 3분위, 고소득층은 4, 5분위.

○ (재무 건전성) 신규 차입 가구는 DSR 등 재무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소득과 자산 등이 크게 감소한 점이 우려되는 상황

- 신규 차입 가구의 경우 단년도 부채 보유 가구라는 특성상 DTA와 DSR로 평가한 재무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

· DTA는 2022년 14.8%에서 2023년 16.8%로 2.0%p 상승하였으며, DSR의 경우 9.0%(2022)에서 3.1%p 상승한 12.1%(2023)를 기록

- 신규 차입 가구는 2022년 대비 2023년 가처분소득이 11.2% 대폭 감소하였으며, 자산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신규 차입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2022년 평균 5,783만 원에서 2023년 평균 5,135만 원으로 11.2% 대폭 감소하였으며, 추가 차입 가구의 소득이 증가한 점과 대조되는 상황³⁾

·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모두 감소하면서 총 자산은 2022년 58,551만 원에서 43,858만 원으로 약 25.1% 감소하여 자산 측면에서 또한 추가 차입 가구의 경우(-4.0%)보다 더 큰 감소 폭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신규 차입 가구가 새로 차입한 부채 규모는 감소한 가운데 이자 비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지속

· 금융부채 규모는 6,023만 원에서 4,850만 원으로 19.5% 크게 감소

· 이자 비용의 경우 금융부채 규모 감소에도 2022년 104만 원에서 2023년 103만 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고금리 여건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신규 차입 가구의 재무건전성 >

(단위: 만 원, %, %p)

구분	2022	2023	증감(률)
가처분소득	5,783	5,135	-11.2
총 자산	58,551	43,858	-25.1
이자비용	104	103	-1.5
DTA	14.8	16.8	2.0
DSR	9.0	12.1	3.1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3) 추가 차입 가구의 소득 증가(1.5%)에도 신규 차입 가구의 소득이 대폭 감소(-11.2%)하면서 부채 증가 가구 전체의 소득이 감소(-1.9%)한 것으로 나타남.

4. 시사점

첫째,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향 안정화가 전망됨에 따라 금리 하락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가속화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 국내 가계대출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었던 2019년~2021년 중 빠르게 증가한 바 있으며, 2024년 1분기 현재도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그 규모 또한 1,767조 원으로 여전히 역대 최고치 수준을 유지 중인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연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시장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할 여지가 있음
- 이에 정부는 스트레스 DSR 등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도입된 대출 규제 정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실수요자의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의 적용 대상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금융위원회, “2.26일(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24.02.26.)

둘째,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내 가계부채의 특성상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도 정책 혼선을 야기하지 않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 국내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가계의 부채 증가 원인으로 부동산 구입 목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주택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한편,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규제 정책을 추진 중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세제 등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민이 느끼는 정책 기조에 혼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한 가운데 가계부채도 증가하는 등 정책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으나,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규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지속하는 한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투기적 수요를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에 더욱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음

셋째, 최근 저소득층 신규 차입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 제도 등의 강화 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최근 부채 증가 가구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저소득층의 신규 차입이 증가하고 생활비 목적의 대출이 증가한 상황
- 한편, 저소득층 및 생활비 목적의 차입 가구는 부동산 구입 목적 차입 가구에 비해 부채 규모가 작은 특징이 있어 소득 기반 등 상환 여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경우 채무상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여지가 높음
- 이에 소득 수준 및 차입 목적 등 가구별 부채 특성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대책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HRI**

신 지 영 선임 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